해인사 신라시대 '쌍둥이 목불' 국보 승격된다

법보전·비로전 비로자나불상
문화재청 9월 1일 지정 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불 인정
2005년 내부서 조성 묵서 발견돼
AMS 등 조사 통해 9세기作 확인
조각 수법 훌륭… 복장도 가치 커
조선불화·전적 등 7건 보물 예고
부석사 안양루·범종각도 보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불인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왼쪽)'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오른쪽)' . 국보로 승격 예고됐다.

현존하는 국내 목불(木佛) 중 가장 오래된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상 2점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은 각각 합천 해인사의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모셔졌으나 지금은 '대비로전(大毘盧殿)' 에 함께 안치돼 있다.

일명 '해인사 쌍둥이 불상' 으로도 알려진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불좌상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최고(最古) 목불이 된 계기는 드라마틱하다. 해인사는 지난 2005년 법보전 불상을 조사했고, 불상 몸체 안에서 나무판에서 신라 헌강왕 시기인 883년 조성했다는 묵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목조불상이 한 점도 없었고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아 당시 학계 일각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의 시선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해소됐다. 2005년 12월에 열린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 에서 박상진 경북대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3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서 4개의 표본을 채취해서 서울대에 AMS(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보전 비로자나불의 AMS연대 값은 AD730±40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AMS연대 값은 910±40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채취된 표본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나무의 다듬어진 부분을 감안해서 나무의 나이를 파악,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같은 작업을 거쳐 법보전 비로자나불은 AD740년 전후부터 950년 전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은 AD950년부터 109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실시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도 통일신라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고,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의 '9세기 조성' 은 정설로 자리잡게 됐다.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비로자나 부처의 수인(手印)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각의 완성도가 높다.

불상과 더불어 복장유물 또한 한국불교사와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해인사는 1489년에서 1490년 동안 조선왕실의 후원을 받은 당대 최고의 고승 학조 대사에 의해 중창됐으며, 복장유물에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동안 이뤄진 불상의 중수과정에서 추가로 납입된 전적류와 각종 직물들이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뛰어난 조형성과 역사성은 물론 종교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우수한 불상"이라며 "불교사적 의의가 큰 복장유물과 함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불화인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와 고려~조선시대 불교 전적 5점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했으며, 8월 26일에는 영주 부석사 안양루와 범종각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는 1755년(영조 31) 수화승 태전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불교전적 분야에서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4건과 〈법화현론 권3~4〉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와 법종루는 16·18세기 사찰 전각 건축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함안 강명리 사지서 통일신라 금동불 4구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발굴 설명회
청동소탑, 철종 등 10여점 발굴
사격, 중창 시기 단초되는 유물

함안 강명리 사지서 통일신라 시기의 금동불입상 4구가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함안 강명리 사지(의곡사) 조사성과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8월 30일 함안 강명리 사지에서 개최했다.

함안 강명리 사지는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광려산에 위치한 절터로서 최근까지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었다. 이 절터는 지난해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의곡사(義谷寺)' 명 와편과 함께 고려시대 금동불좌상, 건물지, 대형 석축 등이 확인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조사에서도 다단으로 조성된 계단식 석축과 함께 건물지 15동이 추가 확인됐으며, 이와 함께 금동불입상, 불두, 철제 종, 청동소탑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함안 강명리 사지서 출토된 통일신라 금동불입상 4구.

연구소에서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에 출토됐던 금동불좌상에 이어 추가로 금동불입상 4구가 확인됐다. 이 불상들은 모두 10cm 내외의 소형이며, 상·중·하대 3단으로 구성된 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불상들은 9세기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유행했던 불입상 형식을 대표한다. 경주 안압지·경주 황룡사지·양양 선림원지 등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과도 유사하다.

청동소탑은 수십여 개의 파편으로 출토됐다. 강명리 사지에 출토된 청동소탑편은 신장상(神將像)과 사자상, 풍경(風磬), 계단 등이 세밀하게 표현돼 있으며, 기단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탑과 유사하고 탑신부는 리움미술관 소장 금동탑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외에도 강명리 사지에서는 철제 종, 풍경, 토제 말, 곱새기와, '대부인(大夫人)' 명, '태평(太平)' 명 기와편 등 당시 사격과 중창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함안 강명리 사지(의곡사) 발굴조사는 함안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의 불교문화 연구에 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이뤄진다면 함안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괘불·단청 사용된 전통 안료 '동록' 복원

국립문화재硏, 4년 연구 통해 완성

사찰 건축에서 사용됐던 전통 안료 '동록(銅綠)' 이 복원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목조건축물의 단청, 괘불, 사찰 벽화 등에 녹색 안료로 자주 사용된 인공 무기안료 '동록' 을 전통 제법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전통 인공 무기안료의 재료와 제조기술을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동록은 제법이 단절돼 복원이 어려웠다. '동록' 은 천연 또는 인공적으로 구리가 산화돼 만들어진 녹색 안료로, 전통적으로도 구리 및 구리합금을 인공적으로 부식시킨 후 분말 형태로 제조해 사용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4년간 동록 안료의 전통 제법을 재현하기 위해 산부식법과 염부식법을 순차적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순수한 구리 및 구리합금 5종의 분말을 원료로 해 염부식법으로 재현한 동록 안료가 실제 문화재 속 고(古)단청의 하엽 색상과 성분이 동일하고 입자 형태도 가장 유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복원에 성공한 전통 안료 동록.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 단청, 괘불, 사찰 벽화, 조선시대 초상화 등 다양한 채색 문화유산에 높은 비중으로 두루 사용된 안료인 동록의 물질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며 "더불어 단절된 동록 제조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